

TV 3일★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방송의 날 기획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방송의 날 기획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시대의 벽을 넘은 여성 - 김필례 편>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별이 되어 빛나라>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민주연합>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특별기획 애인있어요(재)
⑪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미래포럼 <사회통합의 길>(재)	00 부탁해요 엄마(재)	00 주말드라마 <여자를 울려>(재)	
⑫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20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슈퍼맨이 돌아왔다	00 MBC 정오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민주연합> 55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SBS 12 뉴스 3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정치민주연합>
①	50 뉴스특급	00 KBS 미래포럼 <갈등 승화의 길>(재)		30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작 무한도전 스페셜	00 닥터 365 10 남도의 보물 100선 30 세상발견 유레카
②		00 KBS UHD특선 패셔너블 1~2편(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건강 클리닉(재)
③	00 직언직설	40 세계인 스페셜(재) 50 오늘의 경제	05 후토스 미니미니(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00 SBS 뉴스 10 SBS 이슈 인사이드
④	30 쾌도난마	00 KBS 미래포럼 <북한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길>(재)	00 TV 유치원 스페셜 30 별별가족 35 동물의 세계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30 꾸러기 탐구 생활
⑤	5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콜론즈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50 SBS8 뉴스
⑦	10 갈때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UHD시대가 열린다	50 일일 드라마 <다 잘될 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25 KBC 8 뉴스 45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2차 지역예선 <대한민국 vs 카오스>
⑧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족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같은 딸>	
⑨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2015 KBS 대기획 넥스트 휴먼(제1편)	00 수목 드라마 <여섯부리>	00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	00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⑪	0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뉴스라인 40 KBS 미래포럼 개막식	10 해피 투게더	15 경찰청 사람들 2015	15 자기야
⑫	40 카톡쇼 X	25 KBS 미래포럼 초청강연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 리그 다이아리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00 크레명의 창의력 팟방	14:50 빠빠에 친구	18:4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3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라졌어요	15:00 꼬마 철학자 추고	18:45 스콜랜드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15 마야의 모험	18:5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4
06:10 세계의 노래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9:00 갤럭시 프로젝트
07:00 지파이터스(재)	11:10 다큐 오늘	15:45 오피와 친구들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5:50 크레명의 창의력 팟방(재)	19:50 사선에서
07:45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0:40 다큐오늘
08:00 당동맹 유치원 1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6:45 당동맹 유치원1~3(재)	20:50 세계테마기행
08:10 통통가족	13:05 역사채널e	17:30 꼬마버스 타요(재)	<중앙아시아 고원기행>
08:15 그림을 그려요	13:1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17:45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08:20 당동맹 유치원 2	13:40 사이틴 지구인 자격평가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서해섬을 만나다>
08:30 두다다콩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8:05 출동 슈퍼왕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40 당동맹 유치원 3	14:00 곤	18:2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2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캐니멀	18:25 내 친구 아서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올림포스 <국어 II-알짜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 II-알짜개념>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4:30 " <역사 1-2>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7:30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	15:10 어휘랑 교과서 한자어를 찾아라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a>	시험대비 강좌	15:20 만점왕 <과학 3-2>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물과 통계>	08:30 원산지관리사 시험대비강좌	15:50 " <과학 4-2>
03:20 " <수학 II>	15:40 " <기하와 벡터>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6:20 " <과학 5-2>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 II>	09:10 TV중학 <국어(1)(2)>	16:50 " <과학 6-2>
		09:50 " <영어>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05:00 뉴탐스런 <화학 I>		10:30 " <도덕 2>	<전과목 6-1>
06:00 " <지구과학 I>	18:10 2016 N제 <수학B>	11:10 " <국어(3)(4)>	17:50 다큐 오늘
06:40 " <세계지리>	19:20 " <세계사>	11:50 " <영어 2>	18:00 TV중학 <수학3(해)>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2:30 EBS 특강	18:40 <영어 3>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13:00 대일리 서술형 수학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09:10 " <이은주의 수학 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3:10 중학 중·기 시험대비 문제풀이 <사회 1-2>	20:00 EBS 인문학특강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듣기>	21:50 " <문학 B형>	13:50 " <사회 2-2>	20:50 EBS 기획시리즈
11:00 " <수학 I B>	22:30 박범의 이슈로 만성은 경제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3일(음 7월 21일 壬午)	
	48년생 웃음꽃이 만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60년생 경험을 잘 살린다면 미래의 보배를 얻을 것이다. 72년생 우연히 길사와 연결되나 오래가기는 힘들다. 84년생 역지로 꾸미려고 하면 더 어색해 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85		42년생 전제를 두루 살펴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54년생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뤄질 수 있겠다. 66년생 단단해 보였던 것이 쉽게 파손될 수 있다. 78년생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7.70
	49년생 돌발사태가 보이니 지혜롭게 대응해야만 할 것이다. 61년생 막혀있던 물꼬가 트일 것이다. 73년생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찍이 나서는 양태다. 85년생 자주 행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3.18		43년생 정도를 걸으면 불날이 올 것이다. 55년생 근처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67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나듯 때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79년생 기억에 영원히 각인될 수 있는 일이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77.16
	38년생 변화가 있을 것이니 대비할 필요가 있다. 50년생 제대로 인식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62년생 치밀하게 원인을 분석을 하자. 74년생 불완전한 구상은 실패를 이끄는 실마리가 될 뿐이다. 86년생 출산수범 하자. 행운의 숫자 : 39.61		44년생 전화위복, 새옹지마라 할 만하다. 56년생 적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68년생 지나치게 살피다가는 불리해진다. 80년생 일시적인 중단 수가 보이지만 머지않아 재개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24
	39년생 구제적이었을 때 생산적이다. 51년생 소홀함이 없어야 잘 풀린다. 63년생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75년생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야 손해가 없을 것이다. 87년생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8.82		45년생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만 한다. 57년생 대체적인 흐름은 양호하나 작은 결집들도 보인다. 69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을 것이다. 81년생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25.35
	40년생 지난날의 경우대로 인식한다면 착오를 일으키기 충분하다. 52년생 드디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할 때가 왔다. 64년생 두 얼굴의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 될 것이다. 76년생 대체로 길조이다. 행운의 숫자 : 83.69		46년생 집착을 떨쳐 버릴 수 있는 절제가 절실하다. 58년생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 가장 무난하다. 70년생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82년생 결코 녹독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59
	41년생 전체적인 판도를 좌지우지할만한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겠다. 53년생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65년생 습관화 된다면 순기능을 할 것이다. 77년생 유리한 국면의 기초를 다지게 될 판세다. 행운의 숫자 : 48.01		47년생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 59년생 돌발적인 상황이 추진하던 일에 차질을 줄 수 있다. 71년생 급작스런 수단을 취하는 것이 국면을 타개하는데 일조한다. 83년생 진행 방향으로부터 장애 요인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60.6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최고의 멜로 ... 보람된 경험이었죠”

최근 종영 ‘여자를 울려’의 송창의

지난달 29일 종영한 MBC TV 주말연속극 ‘여자를 울려’는 “두 개의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형사 출신 아줌마 덕인(김정은 분)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학교폭력에 맞서 분투하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아버지인 진우(송창의·사진)와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갈수록 극의 무게 중심은 악녀 은수(하희라)를 내세운 진우 집안의 숨 막히는 암투로 옮겨갔다. 그 때문에 ‘여자를 울려’ 안에 두 개의 작품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 것이다.

주연으로서 서운했을 법도 한데 1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송창의(36)는 “이야기가 점점 무거워지도록 원래 시놉시스에 설정돼 있었다”라고 답했다.

“사실 주말연속극은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는 것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작품에 임했고요. 덕인과 진우 이야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은 감사드려요. 초반에(덕인과 진우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기는 했지만, (방영된 대로) 나중에 끌고 가야 하는 내용이 원래 있었어요.”

송창의는 무엇보다 진우 캐릭터를 해석하는 데 몰입했다고 강조했다.

진우는 재벌가 막내아들로, 겉으로 보서는 걱정할 것 없는 삶을 사는 고사다.

그러나 정략결혼을 했던 아내가 젊은 나이에 자살했고, 고등학생 아들 윤서는 그 때문에 아버지를 한없이 미워한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송창의는 장성한 아들을 둔 아버지를 과연 제대로 연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다고.

그는 “아들에게 미안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정말 많이 생각했다”라면서 “부성애만큼은 연기할수록 적응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들 윤서 역을 맡은 한종영(20)에 대해서는 “엄마 자살도 그렇고 윤서 입장에서는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라면서 “한종영이 그 역할을 연기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텐데도 성실히 잘 해줬다”라고 말했다.

진우의 덕인을 향한 더없이 지고지순한 사랑도 송창의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진우가 덕인과 사랑에 빠진 것은 한 번도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일 거예요. 진우에게 사랑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생



각해봤어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최고 멜로를 (경험)한 것 같아요.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상징적인 사랑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진우를 연기하면서 남자라면 어떻게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한다는 걸 배웠죠.”

그는 멜로 호흡을 맞춘 김정은에 대해 “정말 열심히 하고 힘이 넘치는 배우”라면서 “김정은이 극 초반에 아이 죽음을 품고 사는 어머니로서 오열하는 장면을 보면서 남다른 각오로 이 작품에 임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송창의는 전날 참석해 드라마 종영 기념 뒤풀이의 흥에서 채까지 못한 모습이었다. 불과 여름을 함께 보낸 ‘여자를 울려’를 떠나 보내기가 못내 아쉬운 모양이었다.

OCN ‘닥터 프로스트’와 ‘여자를 울려’까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안방극장에 머물러 온 송창의는 뮤지컬 무대에서 다시 인사드릴 예정이다.

“잠깐 쉬 다음 뮤지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아직 작품 이름을 밝힐 수 없었고요. ‘여자를 울려’를 보람되게 마쳤어요. 특히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선배 배우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다는 점이 기쁩니다.”

“‘신서유기’ 낯설지만 즐거워”

나영석 PD 등 ‘1박 2일’ 멤버들과 다시 만난 강호동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낯선 경험이 많았습니다.”

지상파를 벗어나 케이블을 ‘건너뛰고’ 온라인으로 직행한 방송인 강호동(45·사진)의 설명이다.

강호동은 tvN이 제작해 4일부터 네이버에서 방영하는 웹 예능 프로그램 ‘신(新)서유기’를 선보인다. KBS 2TV 리얼 버라이어티 ‘1박2일’ 전성기를 함께 이끌었던 나영석 PD 손을 잡고 서다.

강호동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서유기’ 제작발표회에서 “어게 힘을 빼고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즐기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1박 2일’ 시절을 돌이켜보면, 힘을 꼭 주고 임했을 때보다 주어진 상황에 집중하고 즐겼을 때 시청자들이 더 재미를 느끼고 사랑도 많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나 PD뿐 아니라 함께 ‘1박 2일’을 보낸 이승기, 이수근, 은지원이 출연한다는 점도 강호동이 “웃고 떠들고 즐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강호동은 인터넷 방송이라는 도전을 감행한 배경에 대해 “예능적으로 저보다도 저 자신을 잘 아는 나영석 PD를 비롯한 제작진이 있고 오래된 친구들이 함께 출연하기 때문에 큰 고민과 걱정 없이 길을 나설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산시성 시안을 무대로 하는 ‘신서유기’는 전생애는 유

능한 씨름선수였으나 돼지로 환생한 ‘저팔계’ 강호동이 만형임에도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애교를 부리며, 인간적인 고인도 털어놓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배석한 나 PD는 “‘신서유기’에서는 내려놓은, 힘 빠진 강호동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평소 TV에서 120% 충전된 강호동을 봤다면 이번에는 30% 충전된 강호동의 모습도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서유기’는 세금 문제로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가 돌아온 뒤 성적 부진에 빠진 강호동의 부활이 될지도 관심거리다.

강호동이 새롭게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청률 참패 끝에 연달아 폐지됐고, 고정으로 출연하는 SBS TV ‘스타킹’도 8년 만에 재단장을 이유로 막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호동은 “시청자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도, 외면 받을 때도 있는 법”이라면서 “외면받아도 항상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시원



최강창민



은혁



동해

은혁·동해·시원·최강창민 ... 원로 아이돌 입대 러시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은혁(이혁재·29)과 동해(이동해·29)가 오는 10월 현역 입대한다. 또 다른 멤버인 최시원(28)과 동방신기 최강창민(심창민·27)도 11월 현역으로 군복을 입는다.

2일 이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중 은혁이 오는 10월 13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스타트를 끊는다. 이어 동해가 이틀 뒤인 15일 의무경찰로 입대한다.

최시원과 최강창민은 11월 19일 의무경찰로 나란히 입대한다.

SM 측은 “나이가 찬 만큼 당연히 입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네 명 모두 현역으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 중인 최시원은 오는 16일 첫 방송 되는 MBC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촬영을 마친 후 입대한다.

최강창민도 출연 중인 MBC ‘밤을 걷는 선비’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입대 준비를 할 예정이다.

은혁과 동해는 지난 7월 발매한 슈퍼주니어 10주년 앨범 ‘데블’(Devil) 활동을 마친 상태다. /연합뉴스